

두 유형의 사회적 기대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효과¹⁾

정 영 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고통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자기통제 상황에서 칭찬과 같은 자기지향적 사회적 기대로 인한 자기통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고통을 제어할 수 있는 대안적 원천의 하나로서 타인(어머니)에게 발생할 득을 기대하는 타인지향적 사회적 기대로 인한 자기통제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오른손잡이 국민학교 5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고통과 지겨움을 느끼는 왼손으로 글자쓰기 과제를 사용하여 두 개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1에서는 실험자의 칭찬에 대한 기대의 효과 대 어머니의 기쁨에 대한 기대의 효과를, 실험 2에서는 어머니의 칭찬에 대한 기대 효과 대 어머니의 기쁨에 대한 기대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첫째,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알려준 조건의 아동들이 그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면 실험자로부터 참을성 있고 착한 어린이라는 칭찬을 받게 된다고 알려준 조건의 아동들보다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더 오래 하였다. 둘째, 과제 수행을 통해서 어머니의 칭찬을 기대하도록 유도한 조건의 아동들과 어머니의 기쁨을 기대하도록 유도한 조건의 아동들 간에는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한 시간에 차이가 없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얻어진 의외의 결과로서 어머니의 기쁨에 대한 기대와 어머니의 칭찬에 대한 기대 둘 다를 유도했던 조건의 아동들은 어머니의 기쁨에 대한 기대만을 유도했던 조건의 아동들보다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더 짧게 수행하였다. 어머니의 기쁨에 대한 기대가 아동으로 하여금 고통을 극복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는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배려가 자기통제의 중요한 원천의 하나임을 입증해 줌으로써 아동의 자기통제에서 어머니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사회적 보상의 효과를 연구할 때에 사회적 보상을 주는 타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과 어머니의 기쁨에 대한 기대가 내재적 동기의 성질을 지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1)

자기통제를 증진시킬 수 있는 원천을 찾아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 자신에게 생기는 물질적 보상이나 사회적 보상

(예: 칭찬)을 통한 자기통제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하고서, 자기통제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적 원천으로서 타인(특히 어머니)에 대한 배려를 제안하고 이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입증하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를 증진시

1) 이 논문은 199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킬 수 있는 사회적 원천으로서 두 가지 유형의 사회적 기대를 구분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려 하였는데, 한 유형의 사회적 기대는 행위자가 타인으로부터 받게 될 좋은 결과 (예: 칭찬)를 기대하는 것이며, 다른 한 유형의 사회적 기대는 행위자가 타인에게 미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자기지향적 사회적 기대 (self-centered social expectation), 후자를 타인지향적 사회적 기대 (other-centered social expectation)로 칭하였다.

자기통제 (self-control)란 개인에게도 유익하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행동 (표적 행동)과 그 행동의 실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을 때, 방해요인의 영향을 제어하고 표적행동을 실행하도록 자신을 규제하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한다고 할 때에, 거기에는 고통을 참아내고 (Eisenberger, Weir, Masterson, & Theis, 1989; Kanfer & Goldfoot, 1966), 유혹을 물리치고 (Patterson & Mischel, 1975, 1976), 즉각적으로 충족하고 싶은 욕구의 만족을 지연하는 것 (Freud, 1959; Mischel, 1974)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바람직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표적행동의 실행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볼 때에 (Eisenberger, 1992; Freud, 1959; Kanfer, 1970; Karoly, 1993; Patterson, 1984; Skinner, 1953), 일부 선행 연구들에서 행위자 자신에게 생기는 물질적 보상이나 사회적 보상을 사용한 자기통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먹고 싶은 충동을 고조시키는 조건에 놓인 취약한 아동들은 장차 자신에게 생길 더 많은 물질적 보상을 얻기 위해 욕구만족을 지연하기보다는 즉각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즉각적 보상을 취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Miller, Weinstein, & Karniol, 1978; Mischel & Baker, 1975; Mischel & Ebbesen, 1970; Moore, Mischel, & Zeiss, 1976; Toner & Smith, 1977; 정영숙, 1984). 그리고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유도했을 경우에 실패를 체험할수록 아동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전의 비효율적인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여거나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Dweck

1986; Elliott & Dweck, 1988). 이 결과들은 충동이나 고통과 같은 방해요인의 영향이 강력하면 행위자는 그 방해요인에 압도되어 자신에게 주어지는 물질적 보상이나 사회적 보상과 같은 유인물마저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신에게 국한된 득이 발생하는 것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참아내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개인으로 하여금 고통을 극복하게 하는 대안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또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라는 데에서 그 대안적 원천의 하나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Guisinger & Blatt, 1994; Kitwood, 1990). 타인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자신과 타인을 관련시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적 결과 (예: 타인의 인정)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결과 (예: 타인의 기쁨)도 생각할 줄 안다 (Batson, 1990). 사람들은 가급적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하므로 (Jones & Pittman, 1982),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대한 기대가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Aronfreed, 1976; Hartig & Kanfer, 1973; Kanfer & Zich, 1974; Pressley, 1979; Toner, Moore, & Emmons, 1980). 그러나 타인의 인정에 대한 기대가 실패 체험을 극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 결과를 출발점으로 하여 (Elliott & Dweck, 1988), 타인의 칭찬과 같은 자기지향적 사회적 기대는 개인이 체험하는 고통이 큰 상황에서 고통을 제어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자기통제를 증진시키는 다른 사회적 원천을 찾아낼 필요도 있다.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인 우리들은 자신에게 생길 득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타인에게 생길 득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Klinger, 1977).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은 자신에게 생기는 득을 생각해서는 하지 않던 행동도 타인에게 생기는

득을 생각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일상생활 속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예: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설득해도 맛이 없다고 음식을 먹지 않던 아이가 어머니가 자신들이 건강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서는 먹기 싫지만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 보통은 하기 싫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에게 득이 생기는 경우에 개인이 그 일을 기꺼이 한다는 일화적 관찰 (예: 고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하고서 고된 훈련을 참아낸 황영조 선수)은 자기통제를 하게 하는 사회적 원천으로서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을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한 유형의 사회적 기대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어떤 유익이 발생할지 또는 어떤 불편이 발생할지를 예상하여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려하고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인을 배려한다고 할 때에 모든 타인을 동일하게 배려하는 것 같지는 않다. 어린 아동들도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에 대해 더 자주 더 쉽게 배려하는 경향이 있다 (Zahn-Waxler, Radke-Yarrow, Wagner, & Chapman, 1992). 타인에 대한 배려는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맹자의 주장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孟子, 盡心上篇 45)도 사람들에게서 친밀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더 자주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취학전 아동들은 보상의 수혜자가 모르는 아이일 경우보다 친한 친구일 경우에 지루한 과제를 더 오래 수행하였다 (Kanfer, Stifer, & Morris, 1981). 가족과 같이 공동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Clark & Mills, 1979). 어머니는 아동이 필요로 하는 물질적 자원과 정서적 자원을 공급하는 아동의 애착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Ainsworth, Blehar, Waters, Wall, 1978; Bowlby, 1969; Erikson, 1963), 아동들이 배려하기가 용이한 타인으로 어머니를 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타인의

유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으로서 아동의 어머니를 택하였다).

자신으로 인해 타인에게 미쳐질 유익이나 불편을 생각하는 타인지향적 사회적 기대는 자신이 타인으로 부터 받게 될 유익이나 불편을 생각하는 자기지향적 사회적 기대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서로 구분이 될 수 있다. 첫째, 전자가 상대방으로 향한 조망이라면 후자는 자신으로 향한 조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전자는 타인을 생각하되 행위의 결과의 수혜자가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기대의 지향이 타인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며, 후자는 타인을 생각하되 그 결과의 수혜자가 행위자 자신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기대의 지향이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타인지향적 사회적 기대에는 상대방의 안녕과 복지 증진이 내포되어 있는 반면에, 자기지향적 사회적 기대에는 행위자 자신의 안녕과 복지 증진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자기통제의 주요 원천으로 사용되어 왔던 타인의 인정과 같은 자기지향적 사회적 기대의 효과 이외에 자기통제의 대안적 원천으로서 타인의 유익을 기대하는 타인지향적 사회적 기대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득이 생기도록 하거나 불편을 끼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고통을 참아내는 것으로 보이는 많은 일화적 관찰을 실험적 사실로 입증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기체에게서 고통에 대한 회피 경향성이 유인 자극에 대한 접근 경향성보다 더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Brown, 1948), 고통과 보상을 동시에 받게 될 경우 유기체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질 보상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더 많은 물질적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 어린 아동들의 즉각적 충동을 억제하게 (즉각적으로 충족시키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것을 고통으로 간주) 하는데 미흡했던 선행 연구의

2) 사람이 타인을 배려해서 자기통제를 한다는 일반 명제가 성립될 수 있는지는 어머니를 배려해서 자기통제를 한다는 구체적 명제가 성립된 후에 검토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생각됨.

결과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사실로 입증해 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Miller, Weinstein, & Karniol, 1978; Mischel & Baker, 1975; Mischel & Ebbesen, 1970; Moore, Mischel, & Zeiss, 1976; Toner & Smith, 1977; 정영숙, 1984).

자신에게 국한된 보상은 개인으로 하여금 고통을 참아내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타인의 칭찬 (사회적 보상)과 같은 자기지향적 사회적 기대는 고통을 느끼는 개인에게서는 그 유인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타인의 인정에 대한 기대와 같은 사회적 기대는 자신으로 향한 조망인 반면에 타인의 유익을 기대하는 사회적 기대는 상대방으로 향한 조망이다. 따라서 만약 개인이 고통을 체험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신으로 향한 조망보다는 타인으로 향하고 있는 조망이 개인으로 하여금 고통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에 근거해 볼 때 자기지향적 사회적 기대를 하는 경우보다는 타인지향적 사회적 기대를 하는 경우에 개인은 고통을 더 잘 참아낼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자기지향적 사회적 기대로서 각각 실험자로부터 올 칭찬에 대한 기대 (실험 1)와 어머니로부터 올 칭찬에 대한 기대 (실험 2)를 유도하고, 타인지향적 사회적 기대로서 어머니에게 생길 기쁨을 기대하도록 유도하여 (실험 1과 실험 2), 신체적으로 힘들고 고되며 지겹고 하기 싫은 과제의 지속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였다: 1) 실험자로부터 올 칭찬에 대한 기대를 하도록 유도한 집단의 아동들이 어머니의 기쁨을 기대하도록 유도한 아동들보다 고되고 힘든 과제를 더 오래 수행할 것이다 (실험 1). 2) 어머니로부터 올 칭찬에 대한 기대를 하도록 유도한 아동들이 어머니의 기쁨을 기대하도록 유도한 아동들보다 고되고 힘든 과제를 더 오래 수행할 것이다 (실험 2). 실험 2에서는 어머니의 칭찬과 어머니의 기쁨을 모두 기대하도록 유도한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성질이 다른 두 유형의 기대가 조합될 때에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를 탐색하기 위해서였다.

실 험 1

방법

피험자. 부산 시내에 있는 한 국민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왼손잡이가 아니면서 친 어머니와 함께 사는 학업 성적이 중간에 속하는 아동 20명 (남, 여 각각 10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에 참여할 아동들 (오른손잡이, 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 중간 성적의 아이)은 담임 선생님의 의해 사전에 선발되었으나, 아동들에게는 자신들이 출석부의 이름만으로 무선적으로 뽑혀졌다고 알려주었다.

실험과제 선정을 위한 예비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왼손으로 글자쓰기 과제가 고되고 힘들고 지겨운 과제를 확인하는 두 가지 예비적 절차를 거쳤다. 본 연구의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한 학급의 전체 아동들 (43명)에게 담임 선생님의 지도하에 교실에서 아동들로 하여금 윗 줄에 있는 글자를 보고 그 아랫줄의 빈 칸에다 왼손으로 글자를 모사하게 하였다. 20분간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시킨 후에 아동들에게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해 본 느낌을 자유롭게 적게 하였다.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20분간 해 본 거의 모든 아동들 (43명 중 41명)이 손과 팔, 어깨 등이 아프거나 힘들다고 적었다. 그리고 왼손으로 글자쓰기가 지겹다고 적었던 아동들도 과반수가 넘었으며 (56%), 왼손으로 글자쓰기가 하기 싫다고 적었던 아동들도 거의 반 정도이었다 (47%).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한 43명의 아동들 중에서 12명 (28%)이 위의 세 가지 내용을 모두 언급하였고, 24명 (56%)은 세 가지 내용 중 어느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언급하였으며, 그리고 7명 (16%)은 세 가지 내용 중 어느 한 가지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종이를 찢어 버리고 싶었다고 적었던 학생과 미칠것같았다고 적었던 아동도 두 명이 나 있었으며, 왼손으로 글자쓰기가 끔찍하다고까지 적었던 아동도 한 명 있었다. 아동들이 자유롭게 적었던 내용을 근거로 본 연구자는 오른손잡이들에게서 왼손으로 글자쓰는 일은 적어도 신체적으로 힘들고, 심리적으로 지겹고, 하기 싫은 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원손으로 글자를 쓰는 것이 신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지겹고, 하기 싫은 과제임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는 실험실 상황에서 아동에게 과제에 대한 평정을 시켰다. 본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5학년 아동 12명을 대상으로 하여 원손으로 쓴 글자를 수집하기 위해 글자쓰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두 차례의 3분용 연습 시행에 이어 15분간 원손으로 글자를 쓰게 하였다. 원손으로 글자쓰기가 끝난 후에 아동들에게 11점 척도 상에서 원손으로 글자쓰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기 싫었는지를 물었다. 이어서 원손으로 글자를 쓸 때의 자신의 기분에 해당되는 형용사들에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다. 아동들의 기분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형용사들은 모두 30개 (쾌 정서를 나타내는 형용사 9개, 불쾌 정서를 나타내는 형용사 14개, 그리고 채우게 형용사 7개)이었다. 이 형용사들은 실험에 사용될 과제를 평가하기 전에 미리 본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50명의 국민학교 5학년 아동의 50% 이상이 그 뜻을 정확하게 적었던 형용사들이었다. 12명의 아동들이 원손으로 글자 쓰기 과제에 대해 평정한 결과와 원손으로 글자쓰기를 할 때의 자신의 기분에 해당된다고 보고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른손잡이들에게서 원손으로 글자쓰는 일은 아주 힘

이 들고, 아주 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기분을 불쾌하게 하는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과제. 본 실험에 사용된 과제는 원손으로 쉬지 않고 글자쓰기이었다. 원손으로 글자쓰기 과제는 아동들이 윗 줄에 있는 글자를 보고 그 아랫 줄에다 원손으로 그대로 따라 적는 것이었는데, 따라 적어야 할 글자는 보통의 글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울상의 글자이었다. 거울상의 글자를 제시한 것은 보통의 글자로 주었을 때에는 한자씩 보고 따라 적기보다는 여러 글자를 한꺼번에 보았다가 적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으로 하여금 한자씩 한자씩 따라 적게 하기 위한 한 방안이었다. 한 줄에는 10자의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모든 글자가 반침이 있는 글자이었다. 10자의 글자를 네모 칸 속에 써서 제시하였는데, 네모 칸은 옆으로 퍼진 칸, 길쭉한 칸, 보통의 칸의 세 종류가 있었다. 글자의 칸을 달리 한 것은 위에 있는 글자를 따라 적는 이유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이 글자쓰기를 소홀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원손으로 글자쓰기를 고되고 힘든 과제로 만들기 위한 부가적인 조치로 글자를 쓰는 종이 바로 밑에다 흰종이를 깔아 아동이 쓴 글씨의 흔적이 그 흰종이에 남게 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아동이 해야하는 과제는 원손으로 글자를 쓸 때에 글자

표 1. 원손으로 글자쓰기 과제를 실행해 본 아동들 (n=12)의 과제에 대한 평가

	힘든 정도	하기 싫은 정도	부적 기분	정적 기분
평균	8.75a	9.33b	10.08c	0d
표준편차	1.29	0.89	3.12	0

- ab. 11점 척도 상에서의 점수임. 수치가 클수록 더 힘들다(더 하기 싫다)고 응답한 것임. 0점은 하나도 힘들지(하기 싫지) 않았다를, 5점은 좀 힘들었다(하기 싫다)를, 그리고 10점은 아주 힘들었다(하기 싫다)를 나타냄.
- c. 자신의 기분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불쾌 정서 단어의 갯수임. 전체 불쾌 단어의 갯수는 모두 14개이었음. 불쾌를 나타내는 정서 단어로는 지겹다, 답답하다, 화나다, 지루하다, 짜증나다, 귀찮다. 실망하다, 조마조마하다, 걱정하다, 불안하다, 갑갑하다, 고민하다, 괴롭다, 조금하다이었음.
- d. 자신의 기분에 해당된다고 보고한 쾌 정서 단어의 갯수임. 전체 쾌 정서 단어의 갯수는 모두 9개이었음. 쾌 정서 단어로는 신나다, 재미있다, 행복하다, 흥겹다, 편하다, 즐겁다, 감동하다, 안심하다, 기분 좋다이었음.

의 모양과 크기를 보고 그대로 따라 적되, 밀 종이에 글쓴 흔적이 남도록 손에 힘을 주어 또박또박 적어야 하고, 중간에 쉬지않고 글자를 쓰는 것이었다. 한 페이지에 40자의 글자 (네 줄)가 적혀 있었다. 한 아동에게 총 10매를 주었다.

질 차. 실험은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오른손잡이인 피험 아동이 실험실에 들어와서 앉으면 실험자는 피험 아동에게 아동이 수행해야 할 과제가 왼손으로 글자쓰기라는 것과 아동에게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주었다. 이어서 아동이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자세히 설명해 준 후에, 왼손으로 글자쓰는 일을 열심히 하면 실험자에게 참을성있고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게된다고 알려 주거나 힘든 일을 열심히 하면 어머니가 기뻐할 것임을 알려 주어 고되고 힘든 일 (왼손으로 쉬지 않고 글자쓰기)을 가급적 오래하도록 동기화시키는 두 유형의 사회적 기대를 유도하였다. 끝으로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하다가 힘들어 더 이상할 수 없어 그만두고 싶을 때에 손을 들어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과제 수행 시작 후부터 손을 들었을 때까지의 시간을 재어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인의 조작. 실험에 참가한 아동들은 실험자의 인정을 기대하도록 유도하는 지시 (타인의 인정 기대 조건:자기지향적 사회적 기대 유도)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도록 유도하는 지시 (어머니 배려 유도 조건:타인지향적 사회적 기대 유도) 중 어느 한 가지 지시를 받았다. 어머니를 배려하도록 유도한 집단의 아동들에게는 먼저, 실험자는 아동에게 “00어머니는 00를 많이 사랑해주시지?”라는 질문과 “00어머니는 00를 위해서 힘든 일을 많이 하시지?”라는 질문을 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으로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고생을 인식하게끔 유도하였다. 그런 다음에 실험자는 아동들에게 어머니는 아동들이 힘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즉 실험 1에서는 아동들에게 고되고 힘든 일인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열심히 하면 아동을 사랑해 주고 아

동을 위해 고생하는 아동의 어머니가 기뻐할 것을 예상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지향적 사회적 기대를 갖도록 유도하였으며,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열심히 하면 실험자로부터 참을성있고 착한 아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어 자기지향적 사회적 기대를 유도하였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기대를 유도하는 지시는 다음과 같았다.

이름이 뭐지? 00어머니는 00를 많이 사랑하시지? 그래서 어머니는 00를 위해서 힘든 일도 많이 하시죠? 00도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어머니들은 여러분이 힘든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왼손으로 쉬지 않고 글자쓰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00가 이 일을 오래하면 고생하시는 00어머니가 기뻐하실거예요.

실험자의 인정을 기대하도록 유도하는 지시는 다음과 같았다.

이름이 뭐지? 00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하는 사람을 우리가 참을성 있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왼손으로 쉬지 않고 글자쓰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00가 이 일을 오래하면 참을성 있고 착한 어린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거예요.

종속변인의 측정. 종속변인은 아동들이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한 시간으로, 최대 40분을 주었다.

결과

각 처치 조건에 속한 남녀 아동 간의 자료에 대한 사전 자료 분석에서 성의 주효과와 성과 처치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으므로 남녀의 자료를 합쳐서 분석하였다.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오래할수록 참을성 있고 착한 아동이라는 칭찬을 받게된다는 지시를 받았던 아동들 (타인의 인정 기대 조건)과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오래할수록 어머니가 기뻐할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던 아동들 (어머니에 대한 배려 유도 조건)이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한 시간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타인의 인정기대 집단 대 어머니 배려 유도 집단의 글자쓰는 시간 (단위:분)

	타인의 인정 기대 집단 (n=10)	어머니에 대한 배려 유도 집단 (n=10)
평균	18.30a	36.30
표준편차	6.43	7.80

a.글자수를 쓸 수 있는 최대 시간은 40분임.

표 2를 보면, 고되고 힘든 일을 열심히 하면 고생하는 어머니가 기뻐할 것이라는 지시를 들었던 아동들은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참을성 있고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지시를 들었던 아동들에 비하여 두 배 정도로 그 일을 더 오래 하였다 ($t=5.63, df=18, p<.001$, 양방검증). 즉 과제를 수행할수록 개인에게 그만큼 신체적 고통과 지겨움이 가중되는 원손으로 글자쓰기를 열심히 하는 것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 경우에 아동들은 꽤 오랫동안 그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에 반하여 힘든 과제를 열심히 하면 참을성 있고 착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게 되는 실험자의 인정은 아동들로 하여금 그 과제를 오랫동안 수행하게 만들지 못하였다. 이 결과는 예언 1이 타당하다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것이었다.

실험 1의 결과는 고통이 가중되면 개인은 자신에게 생기는 득을 얻기보다는 그 고통을 회피하는 쪽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기통제의 원천으로서 사회적 보상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그리고 개인으로 하여금 고통을 참아내게 하는 대안적 원천으로서 타인(어머니)의 유익을 기대하는 타인지향적 사회적 기대의 유용성을 입증해 주었다.

실험 2

방법

피험자. 부산시내에 있는 한 국민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아동 48명 (남녀 각각 24명)이 실험에 참여하

였다. 이 아동들은 모두 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오른 손잡이 아동이었다.

실험과제. 실험 1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원손으로 글자쓰기이었다.

절차. 실험처치에 해당되는 내용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정이 실험 1의 절차와 동일하였다.

독립변인의 조작. 실험 2에서 아동에게 주어진 지시는 세 가지 이었다. 한 지시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라는 지시이었는데 (어머니의 기쁨에 대한 기대 유도), 이 지시는 실험 1에서 어머니의 기쁨에 대한 기대를 하도록 유도했던 집단에게 주었던 지시와 동일한 것이었다. 다른 한 지시는 어머니의 칭찬을 받기 위해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라는 지시이었다 (어머니 칭찬 획득 유도). 그리고 나머지 한 지시는 이 두 가지 지시를 결합시킨 것이었다 (어머니의 기쁨에 대한 기대 유도와 어머니 칭찬 획득 유도 결합). 어머니의 칭찬을 기대하도록 유도한 지시는 다음과 같았다.

이름이 뭐지? 00는 어머니한테 칭찬받으면 좋지? 어머니들은 여러분이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칭찬해 주시죠? 원손으로 쉬지 않고 글자쓰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00가 이 일을 오래해서 그것을 어머니에게 자랑하면 00는 어머니한테 칭찬을 받을 거예요. (어머니 칭찬 획득 유도 집단)

어머니의 기쁨에 대한 기대와 어머니 칭찬 획득에 대한 두 가지 기대 모두를 유도하기 위한 지시는 다음과 같았다.

이름이 뭐지? 00어머니는 00를 많이 사랑하시지? 그래서 어머니는 00를 위해서 힘든 일도 많이 하시죠? 00도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기뻐하게 해드리고 싶죠? 어머니들은 여러분이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기뻐하시죠? 또 00는 어머니에게 칭찬받으면 좋지? 원손으로 쉬지않고 글자쓰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00가 이 일을 오래하면 고생하시는 00어머니도 기뻐하실 것이고, 00가 그것을 어머니에게 자랑하면 00는 어머니한테 칭찬도 받을 거예요. (어머니의 기쁨에 대한 기대 유

도와 어머니 칭찬 획득 유도 결합 조건)

종속변인의 측정. 종속변인은 아동들이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한 시간으로, 최대 40분을 주었다.

결과

세 가지 지시 유형 별로 남, 여 각각 8명씩의 자료가 포함되었는데, 지시 유형과 성 (sex)을 변량분석한 결과, 성의 주 효과와 성과 지시 유형 간의 상호작용이 없었으므로 각 조건별 남녀의 자료를 합쳐서 분석하였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아동들 (어머니에 대한 배려 조건), 어머니의 칭찬을 받기 위해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아동들 (어머니 칭찬 획득 조건), 그리고 이 두 가지 지시를 모두 받았던 아동들 (어머니에 대한 배려와 어머니 칭찬 획득 결합 조건)이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한 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를 보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아동들과 어머니의 칭찬을 받기 위해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아동들 간에는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한 시간에 차이가 없이 비교적 오랫동안 과제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 개인이 받는 보상이라는 점에서 어머니의 칭찬과 실험자의 칭찬은 모두 사회적 보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보상으로서 실험자의 칭찬이 자기통제에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던 실험 1의 결과와는 달리 실험 2에서 어머니의 칭찬은 어머니의 기쁨에 대한 기대

와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자기통제에서 어머니의 칭찬과 실험자의 칭찬이 차별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하기로 하겠다.

실험 2에서 나타난 의외의 결과는 어머니의 기쁨과 어머니로부터 올 칭찬 두 가지 모두의 지시를 받은 아동들이 어느 한 지시만을 받은 아동들보다 오히려 과제 수행을 더 짧게 하였다 것이다. 즉, 두 가지 지시를 모두 받은 아동들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라는 지시만을 받았던 아동들보다 오히려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더 짧게 수행하였다 ($t=3.02$, $df=30$, $p<.01$, 양방검증). 그리고 이 두 가지 지시를 모두 받은 집단의 아동들은 어머니의 칭찬을 기대하도록 유도했던 집단의 아동들보다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더 짧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t=-1.99$, $df=30$, $.05<p<.10$, 양방검증). 고되고 힘든 일을 오래 하는 것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칭찬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준 조건의 아동들이, 그 일을 오래 하는 것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린다는 사실만 알려주었을 조건의 아동들이나 어머니의 칭찬 획득만을 기대하게 했던 조건의 아동들보다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더 짧게 하였다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종합논의 부분에서 논의하기로 하겠다.

종합 논의

본 연구는 고통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자기통제 상황에서 칭찬과 같은 자기지향적 사회적 기대로 인한 자기통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표 3. 세 조건별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한 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단위:분)

	어머니에 대한 배려 유도 조건 (n=16)	어머니 칭찬획득 유도 조건 (n=16)	어머니배려와 어머니칭찬획득 결합 조건 (n=16)
평균	32.06a	29.25	22.06
표준편차	8.58	10.35	10.06

a.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40분임.

출발하여, 고통을 제어할 수 있는 대안적 원천의 하나로서 타인(어머니)에게 발생할 득을 기대하는 타인지향적 사회적 기대로 인한 자기통제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과제를 수행하면 할수록 개인에게 그만큼 신체적 고통과 지겨움이 가중되는 윈손으로 글자쓰기 과제를 사용했던 실험 결과, 첫째, 힘든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알려준 아동들이(어머니의 기쁨을 기대하도록 유도한 조건) 힘든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면 실험자로부터 참을성있고 착한 어린이라는 칭찬을 받게된다고 알려준 조건의 아동들보다 윈손으로 글자쓰기를 더 오래 하였다(실험 1). 이 결과는 자신이 고통을 체험하면, 사회적 보상으로서 자신에게 생기는 타인의 칭찬(자기지향적 사회적 기대)은 고통을 극복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에게 득이 생기는 과정에서 자신이 체험하는 고통이 커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이 유인하는 쪽보다는 고통을 회피하려는 쪽으로 행동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타당하다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Dollard & Miller, 1950).

어머니의 칭찬 역시 타인으로부터 받을 칭찬이라는 점에서 자기지향적 사회적 기대가 된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칭찬도 실험자의 칭찬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체험하는 고통이 큰 상황에서는 고통을 제어하는데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어머니는 실험자(낯선 타인)와 달리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존재라는 점과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타인을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Baumeister, 1989, 1991; Klinger, 1977), 어머니의 칭찬은 실험자의 칭찬보다는 더 강력한 자기통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실험 2의 결과, 어머니의 칭찬을 기대하도록 유도한 조건의 아동들과 어머니의 기쁨을 기대하도록 유도한 조건의 아동들 간에 윈손으로 글자쓰기를 한 시간에 차이가 없었다. 즉 어머니의 칭찬에 대한 기대는 그 단독으로서는 어머니의 기쁨에 대한 기대에 못지 않게 자기통제를 하는데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실험자(낯선 타인)의 칭찬을 기대하도록

유도했을 때에는 어머니의 기쁨을 기대하도록 유도했을 때보다 아동들은 고되고 힘든 일을 짧게 하였지만(실험 1), 어머니 칭찬을 기대할 때에는 어머니의 기쁨을 기대할 때 못지 않게 고되고 힘든 일을 오래 지속하였던 결과(실험 2)는 앞으로 사회적 보상의 효과를 연구할 때에 사회적 보상을 주는 타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의외의 결과는 어머니의 기쁨에 대한 기대와 어머니의 칭찬에 대한 기대 둘 다를 유도했던 조건의 아동들이 어머니의 기쁨만을 유도했던 조건의 아동들보다 오히려 고되고 힘든 과제를 더 짧게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기쁨에 대한 기대와 어머니의 칭찬에 대한 기대가 서로 성질이 다른 것으로, 특히 어머니의 기쁨에 대한 기대(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내재적 동기의 성질을 지닐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게 한다. 내재적 동기란 활동 자체에 대한 흥미, 즐길, 과제 자체에 대한 정복 등 주로 활동 그 자체를 통해 개인이 느끼는 즐거움을 지칭하는데(Deci, 1971), 내재적 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얻어진 중요한 결과 중의 하나는 내재적 동기에 의해 개인이 수행하는 행동에 외부적인 보상이 주어지면 내재적 동기가 약해진다는 것이다(Deci, 1971; Harackiewicz, 1979; Lepper, Greene, & Nisbett, 1973). Kunda와 Schwartz(1983)는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옳다고 여기는 도덕적 의무감이 부분적으로 내재적 동기의 한 종류임을 제안하면서, 타인을 돕는 일에 외부적인 보상(돈)을 주면 개인은 타인을 돕는 일을 해야 할 일로 덜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동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려는 배려는 그 자체가 개인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Karylowski, 1982). 그러나 어머니의 칭찬은 외부로부터 오는 사회적 보상이다. 따라서 자신이 고통스럽지만 기쁨을 느껴 어머니를 위해 어떤 일을 하려는데 여기에 어머니의 칭찬(외부적인 보상)이 첨가되면 자신이 하는 일의 의의가 약해질 수 있다. 그 결과로 어머니의 기쁨을 기대하게 한 후에 어머니의 칭찬이 첨가되었을 때가 어머니의

기쁨에 대한 기대 (어머니에 대한 배려)만 하는 경우에 비하여 개인은 오히려 고통에 대한 인내력이 약화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어머니의 기쁨을 기대하도록 유도한 후에 그 후에 어머니의 칭찬 획득 (외부적 보상)에 대한 기대를 첨가시켰는데, 이 경우에 아동의 수행이 저조하였다. 그러나 만약 어머니의 기쁨에 대한 기대와 어머니 칭찬에 대한 기대를 조합할 때에, 먼저 어머니 칭찬 획득 (외부적 보상)을 언급한 후에 그 다음에 어머니의 기쁨을 언급했을 때에도 같은 효과를 나타낼지 궁금하다. 어떤 일을 내재적 동기에 의해 수행하려는데 외부적 보상이 첨가되면 내재적 동기가 감해질 수 있지만, 그 역으로 외부적 보상 때문에 어떤 일을 하려는데 그 일에 내재적 동기가 첨가된다면 그 일에 대한 흥미가 감소될 것같지 않다. 만약 아동에게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열심히 하면 어머니께 칭찬받는다는 언급을 한 후에,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어머니를 기쁘게도 하는 것임을 알려 준다면, 수행이 저조해지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같다.

어머니의 기쁨을 기대하도록 유도한 아동들이 어머니의 칭찬을 기대하도록 유도한 아동들에 못지 않게 고되고 힘든 일의 수행을 오래하였고, 참을성 있고 착한 사람이라는 실험자의 칭찬을 기대하도록 유도한 아동들보다 고되고 힘든 일을 훨씬 더 오래 하였다라는 결과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인 어머니의 기쁨에 대한 기대 (타인지향적 기대)는 고통을 극복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는 적어도 우리 문화권에서는 어머니가 아동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동의 행동 통제에서 어머니의 역할의 중요성을 실제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정영숙 (1984). 욕구만족지연 상황에서 보상의 제시방법이 보상가치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청구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 J: Erlbaum.
- Aronfreed, J. (1976). Moral development from the stand-point of a general psychological theory. In T. Li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Batson, C. D. (1990). How social an animal? *American Psychologist*, 45, 336-346.
- Baumeister, R. F. (1991). *Meanings of life*. New York: Guilford Press.
- Baumeister, R. F. (1989). The problem of life's meaning. In D. M. Buss, & N. Cantor (Eds.), *Personality Psychology* (pp.138-148). New York: Springer-Verlag.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New York: Basic Books.
- Brown, J. S. (1948). Gradients of approach and avoidance responses and their relation to level of motivation. *Journal of Comparative and Physiological Psychology*, 41, 450-465.
- Clark, M. S., & Mills, J. (1979) Interpersonal attraction in exchange and communal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2-24.
- Deci, E. L. (1971). Effects of externally mediated rewards on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 105-115.
- Dollard, J., & Miller, N. E. (1950). *Personality and psychotherapy: An analysis in terms of learning, thinking, and culture*. New York: McGraw-Hill.
- Dweck, C. S. (1986). Motivational processes affecting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 41, 1040-1048.
- Eisenberger, R. (1992). Learned industriousness. *Psychological Review*, 99, 248-267.
- Eisenberger, R., Weier, F., Masterson, F. A., & Theis, L. Y. (1989). Fixed-ratio schedules increase generalized self-control: preference for large re-

- wards despite high effort or punishment.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nimal Behavior Processes*, 15, 383-392.
- Elliott, E. S., & Dweck, C. S. (1988). Goals: An approach to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5-12.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reud, S. (1959). Formulations regarding the two principles in mental functioning. In *Collected papers* (Vol. 4). New York: Basic.
- Guisinger, S., & Blatt, S. J. (1994).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American Psychologist*, 49, 104-111.
- Harackiewicz, J. (1979). The effects of reward contingency and performance feedback on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352-1363.
- Hartig, M. & Kanfer, F. (1973). The role of verbal self-instructions in children's resistance to temp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259-267.
- Jones, E. E., & Pittman, T. S. (1982). Toward a general theory of strategic self-presentation. In J. Suls (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vol.1) Hillsdale, N.J.: Erlbaum.
- Kanfer, F. H. (1970). Self-regulation: Research, issues, & speculation. In C. Neuringer & J. L. Michael (Eds.), *Behavior modification in clinical psychology*.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Kanfer, F. H., & Goldfoot, D. A. (1966). Self-control and tolerance of noxious stimulation. *Psychological Reports*, 18, 79-85.
- Kanfer, F. H., Stifter, E., & Morris, S. J. (1981). Self-control and altruism: delay of gratification for another. *Child Development*, 52, 674-682.
- Kanfer, F. H., & Zich, J. (1974). Self-control training: the effects of external control on children's resistance to temp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0, 108-115.
- Karoly, P. (1993). Mechanisms of self-regulation: A systems view.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23-52.
- Karylowski, J. (1982). Two types of altruistic behavior: Doing good to feel or to make the other feel good. In V. J. Derlega & J. Grzelak (Eds.), *Cooperation and helping behavior: Theories and research* (pp.397-413). New York: Academic Press.
- Kitwood, T. M. (1990). *Concern for others: a new psychology of conscience and morality*. London: Routledge.
- Klinger, E. (1977). *Meaning and voi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unda, Z., & Schwartz, S. (1983). Undermining intrinsic moral motivation: External reward and self-pres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763-771.
- Lepper, M. R., Greene, D., & Nisbett, R. E. (1973). Undermining children's intrinsic interest with extrinsic rewards: A test of the "overjustification"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 129-137.
- Miller, D. T., Weinstein, S. M., & Karniol, R. (1978). Effects of age and self-verbalization on children's ability to delay gratifi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4, 569-570.
- Mischel, W. (1974). Processes in delay of gratification. In B. A. Maher (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 Mischel, W., & Baker, N. (1975). Cognitive appraisals and transformation in delay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254-261.
- Mischel, W., & Ebbesen, E. B. (1970). Attention in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329-337.
- Moore, B., Mischel, W., & Zeiss, A. (1976). Comparative effects of the reward stimulus and its cogni-

- tive representation in voluntary dela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419-424.
- Patterson, C. J. (1984). Aggression, altruism, and self-regulation. In M. H. Bornstein, & M. E. Lamb (Eds.), *Developmental psychology: An advanced textbook*.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 Patterson, C. J., & Mischel, W. (1975). Plans to resist dist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369-378.
- Patterson, C. J., & Mischel, W. (1976). Effects of temptation-inhibiting and task-facilitating plans on self-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209-217.
- Pressley, G. M. (1979). Increasing children's self-control through cognitive interven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9, 319-370.
- Skinner, B. F. (1953). *Science and human behavior*. New York: Macmillan.
- Toner, I. J., Moore, L. P., & Emmons, B. A. (1980). The effect of being labeled on subsequent self-control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1, 618-621.
- Toner, I. J., & Smith, R. A. (1977). Age and overt verbalization in delay-maintenance behavior in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24, 123-128.
- Zahn-Waxler, C., Radke-Yarrow, M., Wagner, E., & Chapman, M. (1992). Development of concern for 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26-136.

Effects of Two Types of Social Expectation on Self-Control

Young-Sook C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s of other-centered social expectation as an alternative source to self-centered social expectation in enhancing self-control in the presence of salient obstacles (e.g., working hard painful task). Two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examine the relative effects of these two types social expectation on self-control. Fifth grade right-handed children copied mirror-image letters with their left hand without a pause. This task was very laborious and tedious to children. We compared the effect of children's expectation of approval from experimenter (self-centered social expectation) with that of children's expectation of their mother's joy (other-centered social expectation) on self-control in Experiment 1. And in experiment 2, the effect of children's expectation of approval from their mother (self-centered social expectation) was compared with that of children's expectation of their mother's joy. The result of experiment 1 showed that children who were induced to expect their mother's joy performed the task longer than those who were labelled 'being patient and good child' by an experimenter. results of experiment 2 were as follows: 1) children who were induced to expect their mother's approval performed the task as long as those who induced to expect their mother's joy. 2) Unexpectedly, children who were induced to expect both mother's joy and mother's approval performed the task less longer than those who were induced to expect their mother's joy only. We discussed the nature of expectation of mother's joy and that the effect of social reward on self-control can be different from depending on those who give social rewards.